

서울의 베를린 장벽에 관해 / 징역 위기에 처한 예술인

본건과 관련한 본인의 경력

2017년 저는 Senate of Berlin에서 도시 예술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땀습니다. 저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베를린 장벽에 대한 예술적 개입과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Kiddy Citney와 같이 장벽에 작품을 그리는 작가들을 만났고 그들을 인터뷰했으며 지금도 광범위한 관점에서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983년부터 현재까지 베를린장벽에 이루어진 그래피티를 기록한 사진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베를린장벽 위에 그래피티는 1983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피티를 기록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기획전에서 전시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rbanpresents.net/en/2018/11/obit-tothe-sorry-exhibition/>

1970년대와 1989년 사이의 기간 동안 베를린 장벽에는 서독주민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장벽에 남겨진 그래피티는 그렇기 때문에 서독 측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독 주민들에 의해 행해진 이 행위들은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희망과 저항의 제스처였습니다. 1983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베를린의 북쪽과 Kreuzberg나 Mitte 지역의 예술인들은 장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벽은 회화, 그래피티, 태그 그리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뒤덮인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모두에게 공개된 전시장과도 같이 변했습니다.

장벽 붕괴 후 장벽의 조각들

장벽이 붕괴된 후 대부분의 조각들은 파괴되었고, 일부는 Land Berlin이 관할하게 되었고, 일부는 딜러들이 수집하였습니다. 1990년대 베를린은 다소 무정부적인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 하에 사람들은 장벽의 일부를 사적 소유로 수집하거나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당시 두 회사가 장벽들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장벽들은 1990년 6월 모나코의 Lele라는 곳에서 그림이 그려진 장벽들을 구입해갔습니다. 장벽에 그려진 그림들은 티에리 누아와 키디 시트니를 비롯한 다른 여러 예술인들에 의해 서독 측에 불법적으로 그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림을 그린 장벽은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장벽 판매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티에리 누아와 키디 시트니는 작가를 판매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항의해 소를 제기했고 10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베를린에는 버려진 베를린 장벽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장벽들은 국보로 취급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그림이 덧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긴 덩어리로 보존된 Mauerpark의 장벽 조각도 그래피티 예술가들에게는 90년대부터, 공식적으로는 2012년부터 합법적(으로 그래피티를 그릴 수 있는) 장벽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서울처럼 장벽을 선물로 받은 방콕이나 대만과 같은 나라들 역시 올해 계약 하에 그래피티나 거리 예술을 장벽 위에 그리도록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남겨진 베를린 장벽 중에서 티에리 누아와 키디 시트니의 페인팅이 그려진 장벽들만이 국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East Side Gallery라는 명칭을 붙인 베를린 장벽은 역사적 기념비로 취급

되는 또 다른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장벽이 역사적 기념비로 취급되기 시작한 시기 역시 2009년부터입니다. 이 장벽은 남겨진 장벽 중 1.2km에 달하는 가장 긴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진 후인 1990년에 전 세계에서 모인 121명의 시각예술가들이 공식적인 행사로 이 장벽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가들은 장벽의 동쪽 측면에 작품을 드리도록 의뢰받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벽이 세워진 그 때부터 존재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작품들은 무너진 장벽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서울의 베를린 장벽

서울 청계천변에 세워진 세 조각의 베를린 장벽의 동쪽 측면은 순수한 회색 벽입니다. 서쪽 측면은 오래된 그래피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80년대 정도에 그려진 것이겠죠. 벽면의 왼편에 이 그래피티의 흔적이 있습니다. 장벽의 상태와 원래 그려져있던 그래피티의 상태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그림도 벽의 표면도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 장벽들은 장벽이 무너진 후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가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장벽들의 상태와 비슷해 보입니다. 세 장벽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패치워크라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왼쪽 장벽에 남겨진 그래피티는 매우 급하게 그려진 Throw-up처럼 보입니다. 이 그래피티는 누군가의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아주 급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것을 그린 그래피티 작가는 그것이 영원히 벽 위에 남아있거나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거나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그래피티를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베를린 장벽은 불행히도 매우 나쁜 조건에 전시되어 있으며 장벽 위에 남은 흔적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서울 베를린 장벽 위에 그려진 히드아이즈의 그래피티

서울 베를린 장벽 위에 히드아이즈가 그린 그래피티는 매우 의미있는 예술 작업입니다. 베를린 장벽에 그려졌기 때문에 장벽의 가치를 높인, 그래서 구매의 대상이 되었거나 국보가 되었던 장벽들처럼 이 작업은 추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붕괴된 후 남겨진 장벽들은 이후 그 위에 그려진 예술 작업들과 대중들이 그 위에 남긴 흔적들 때문에 흥미로운 물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는 단색의 못생긴 회색 벽은 그런 상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에 슬로건을 새겨 넣은 사람들, 회화를 그린 작가들, 그래피티를 그린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냉전 시대 베를린을 분단한 벽을 역사적인 가치를 함축한 캔버스 또는 그것을 기록한 다큐먼트로 전환하여 그 벽을 단순한 벽이 아닌 특별한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흔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이며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과 소망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히드아이즈가 서울의 공공장소에 전시된 분단을 상징하는 벽면에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범하지 않은 베를린 장벽의 부분들을 자국의 평화를 상징하는 기호로 변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는 분단된 한국을 위해 희망을 상징하는 예술적 기호를 만들어 장벽에 그렸습니다. 이 행위는 훼손의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행위는 공공장소에 개입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예술적 실천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예술적 실천은 분단된 한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적인 행위입니다.

다음의 질문은 공공장소에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려진 미술의 경우를 논할 때 유의미합니다.

만약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뱅크시와 같은 이들이 서울 베를린장벽에 그림을 그렸다면, 그는 정태용처럼 추적당해 고소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서울시가 그를 자랑스러워했을까요?